KIC 중국

주간 중국 창업 제 301 호

2022.11.02

KIC CHINA
Korea Innovation Center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김종문
전화:+86-10-6780-8840
메일: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

목록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 중국' 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01 WEEKLY 뉴스

<제조업을 외자 확대와 안정 촉진을 위한 중점으로 삼는 정책 조치>발표 P1

청두판다기지 플래그샵에 메타버스 판다 체험관 설립 P4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로 본 중국 도시의 부상 P6

BCG, 2022 년 세계 50 대 혁신기업 발표 P8

02 CHINA 창업

【투자분석】 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전환: 세계의 공장에서 연구개발중심지로 P9

【산업분석】 광저우 수소에너지 인프라 계획 발표 P13

【기업분석】 UBTECH, 글로벌 최초 수소에너지 구동 로봇 개발 P17

03 KIC 중국 뉴스

2022 년 4 분기 혁신기업 K-Demo Day 연기 공고 P21

기술거래사회-글로벌혁신센터, 中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 P22

WEEKLY 뉴스

1. <제조업을 외자 확대와 안정 촉진을 위한 중점으로 삼는 정책 조치> 발표 — 중국인민정부사이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산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가 지난 10 월 13 일 <제조업을 외자 확대와 안정 촉진을 위한 중점으로 삼는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외자 유입을 확대하고, 외상 투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외자 이용 수준을 높이고, 외자를 중국 제조업의 발전 및 글로벌 산업체인을 공급체인과 통합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 투자환경 개선, 외상 투자 유입 확대

(1) 외상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2021 년 새롭게 조정한 외상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새로운 개방 조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방 정책이 실질적인 외자 프로젝트로 성과 맺히게 한다. 외상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와 외상 투자를 동일한 원칙으로 관리하고,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외자 진입 후 대우 관리. 외상 투자 기업이 법규에 따라 국가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 지원 정책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외상 투자 기업이 요소 취득, 자격 허가, 사업 운영, 지적재산권 보호, 표준 제정, 입찰 공모, 정부 조달 등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3) 외자 프로젝트 계약 이행 촉진. 주요 외자 프로젝트가 견인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고, 토지 이용•환경 영향 평가•기획•에너지 소비 등에 정책적 지원을 한다. 주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만들어 빠르게 착수하도록 하고, 타 프로젝트에는 그에 상응하는 전담반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토지 요소 보장 강화. 각 지역에서 프로젝트는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하고, 토지 요소는 프로젝트에 맞춰 현지 실제 상황에 맞춰 배합하되, 중점 제조업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5) 글로벌 산업 투자 협력 활동 수행. 외상 투자 기업•관련 상회•세계 경제 포럼과 같은 국제기구와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발전 전략•외국인 투자•과학기술•산업 정책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와 각 지방 투자 유치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6) 글로벌 투자 공공 서비스 플랫폼 효능 제고. 중국국제투자무역박람회•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 등 대형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투자촉진 기능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한다. 의료•반도체•화공 에너지 분야 산업체인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

2) 투자 서비스 강화, 외상 투자 기업 발전 지원

(7) 국제 비즈니스 인력 교류 촉진. 다국적 기업•외상 투자 기업 임원•기술인력과 그 가족의 출입국 편리를 제공하고 명확한 표준과 프로세스를 세워 외국 인력이 중국에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한다.

(8) 화물 운송과 물류의 원활한 흐름 보장. 각 지방은 외자기업과 그 업다운스트림에 관련된 기업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업 생산 물자와 상품을 원활히 유통해 외자기업의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9) 외상 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 투자 기업의 메인보드, 커촹반, 촹예반,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씬산판 기본층과 혁신층에 등록하고 신용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돕는다. 각 지역의 법과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조업에 투자한 외상기업과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은행과 기업 매칭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0) 외상 투자 기업이 이윤을 재투자하도록 장려. 외국 투자자의 직접 투자 배당 이윤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일시 면제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이 정책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지방에서는 외상 투자 기업이 이윤을 재투자하거나 추가하는 것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토지•에너지 등의 요소를 보장한다. 외상 투자 기업이 제조업 부문에 재투자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장려한다.

(11) 외상 투자 제조업 회사의 수출입 지원. 각 지역마다 공공서비스플랫폼 건설 장려, 외상 투자 제조업 회사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칙 홍보와 교육 증대, 제조업 외상 투자 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무역통관•출입 관리 제도•무역구제에 대한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한다.

3) 투자 방향 가이드를 통한 외상 투자 수준 제고

(12) 외상 투자 구조 최적화. '제 14 차 5 개년 계획 개요'에 따라 선진 제조업과 첨단기술 측면에서는 **첨단 장비•기본 부품•핵심 부품 분야**에, 현대 서비스 산업 측면에서는 **R&D 설계•현대 물류 분야**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신에너지•녹색 저탄소 기술 혁신과 시범 응용 분야**에 외상 투자를 중점적으로 장려한다. 지역적으로는 중서부와 동베이 지역에 기본 제조업•기술 응용•민생 소비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13) 외상 투자 기업의 혁신 발전 지원. 각 지역에서 외자 R&D 센터가 "제 14 차 5 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과학 기술 혁신 수입세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한다. 목록 승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작업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R&D 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외국 자본이 자본과 기술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을 건설하고 스마트제조에 참여하도록 한다. 외국 자본이 국가 신형 산업 시범 기지와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글로벌 혁신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주요 과학기술 인프라의 대외 협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외상 투자 기업이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글로벌 일류 인재팀을 유치하도록 지원한다.

(14) 녹색 저탄소 개발에 대한 외상 투자 촉진. 외국 자본이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녹색 제조 공정을 실시하여 녹색 기술 개발•녹색 상품 제조•녹색 공장 건설•녹색 공급체인 구축을 하도록 지원한다. 외상 투자 기업이 녹색 저탄소 분야 표준 제정 및 개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외상 투자 기업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장려한다.

(15) 외상 투자 제조기업의 중국내 단계식 기술 이전 유도. 우수한 다국적 제조기업이 중부, 서부, 동베이 지역에 입지를 잡고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중서부와 동베이 지역의 국가급 신구와 개발구를 계속 지원하고, 산업 이전 시범구•가공 무역 단계식 이전 중점 지구•국가 가공무역 산업단지를 계승하여 제조업 투자 유치 증진에 더 도움이 되게 한다. 관련 부서는 외자 증대와 투자 예측 안정화에 힘써야 하며 외자 유치 지역은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국에 견인 작용을 한다.

2. 청두판다기지 플래그샵에 메타버스 판다 체험관 설립 — MetaShow

청두메타비전(成都魅他视觉科技有限公司)이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최초로 소비자 대상 디지털 문화관광프로젝트 기술을 자이언트 판다 포토존에 구현했다.

청두 판다기지 정문 앞 광장에 'Home de ERWA(二娃的家)' 건물이 들어섰다. 약 350 ㎡ 규모의 흰색 건물 밖에는 몰입형 3D LED 대형 스크린과 실시간 모션 캡처로 구동되는 사이버 아이돌 ERWA 가 관광객과 소통한다. 또한 여섯 개의 자이언트 판다 XR 스튜디오가 배치되어 자이언트 판다와 함께 사진 촬영할 수 있다.

사진 1) 출처: MetaShow

3D 볼륨 매트릭스 캡처 기술(3D 입체 영상을 만드는 AR 촬영 기술 중 하나)을 통해 자이언트 판다의 홀로그램 3D 모션 데이터를 수집한 후 GPU 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이언트 판다를 1:1 비율의 크기로 재현할 수 있고 가상 촬영 기술을 통해 관광객이 실제로 자이언트 판다와 함께 촬영하는 듯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길 수 있다.

청두메타비전(成都魅他视觉科技有限公司)이 수집한 자이언트 판다 홀로그램 3D 모션 데이터는 세계 유일의 판다 볼륨 영상 데이터로 기존의 CG 방식으로 제작된 자이언트 판다보다 더 사실적이다. 판다의 동작과 표정은 기존 CG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복원하기 어렵고 제작비가 많이 든다. 그에 비해 볼륨 영상의 장점은 수집된 대상의 홀로그램 3D 모션 데이터를 1:1 로 복원할 수 있으며 제작 비용이 CG 모델링보다 몇 배나 더 적게 든다는 것이다.

청두메타비전(成都魅他视觉科技有限公司) 기술팀은 보다 사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서 사용하는 가상 제작 기술을 채택했다. 자인언트 판다 볼륨 영상 데이터를 UnrealEngine 으로 가져와 PC AR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외부에서 연결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자이언트 판다 볼륨 영상과 통합하여 실제 촬영한 듯한 효과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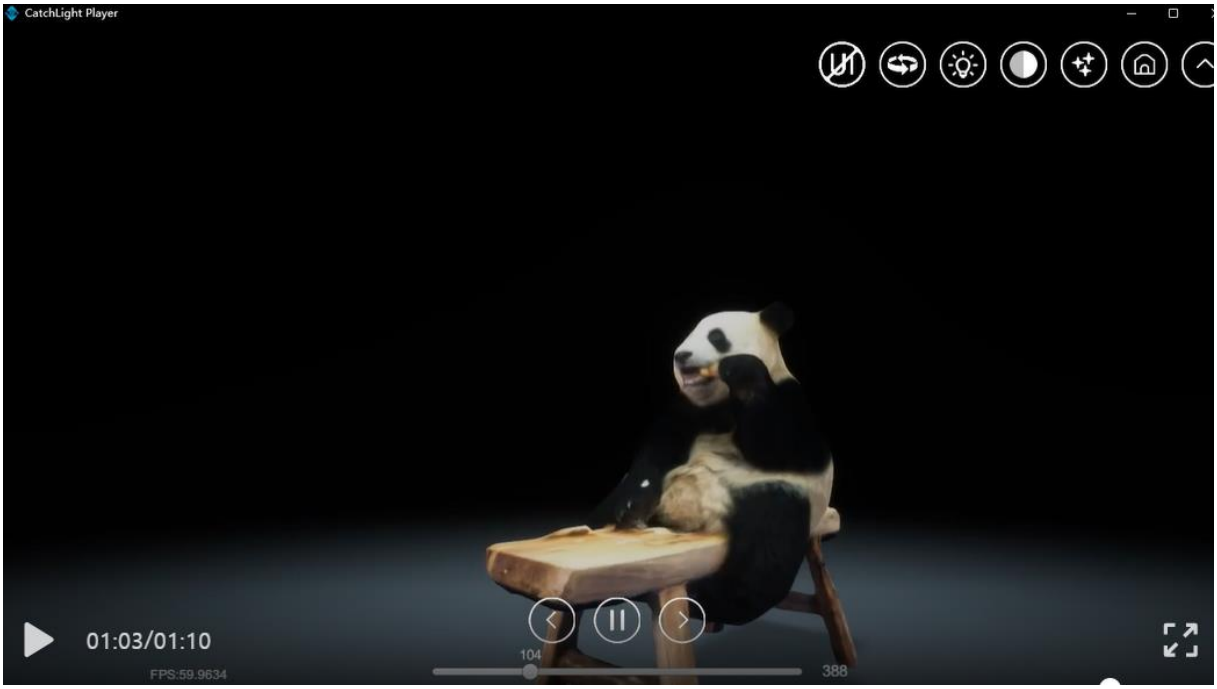


사진 2) 출처: MetaShow, 가공처리 전 자이언트 판다의 볼륨 영상 데이터

기존 크로마키 영상	볼륨 영상
• 2D 영상 • 자이언트 판다와의 촬영은 고정된 카메라 위치에서만 가능 • 촬영 시 현장 조명에 따라 판다의 조명 환경을 실시간으로 조정 할 수 없음	• 3D 디지털자산 • 촬영 위치와 각도를 자유자재로 배치 가능 • 촬영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조명과 음영 등을 조정할 수 있어 촬영 효과가 실제와 근접

그 외 곡면 카메라의 화각을 보유한 XR 공동 촬영 시스템을 설계하여 최대한 볼륨 효과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실감을 높였다.

볼륨 영상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로 본 중국 도시의 부상 — 텅쉰왕(腾讯网)

중국 최상위 싱크탱크인 중국(선전)종합개발연구소와 영국 싱크탱크 Z/Yen Group 이 지난 9 월 22 일 선전과 런던에서 <제 32 회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 보고서(GFCI 32)>를 공동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는 영국 Z/Yen Group 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를 분류하고 순위를 매기기 위해 만든 평가 시스템으로 2007 년 시작되어 매년 한 차례 발표하며 금융 센터의 경쟁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수는 전 세계 119 개 금융 중심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Top 10 에 등극한 금융 중심지는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샌프란시스코, 상하이,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선전, 파리이다.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는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를 경영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수준, 평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허지에〔何杰, 선전시지방금융감독관리국 국장〕는 GFCI 연구 결과에 대해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발전의 중심이 북미와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가 바뀌지 않았고 중국의 금융 중심지가 더욱 부상하며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지수 보고에서 선전은 다시 한 번 세계 10 대 금융 중심지에 올랐고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세계 9 위를 기록했다. 산업 지표 측면에서 세부적으로는 은행, 투자 관리, 보험, 전문 서비스, 정부 감독관리, 금융, 핀테크, 무역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선전은 은행 산업 1 위, 금융 산업 2 위, 보험과 무역 5 위를 하는 등 무역 산업 순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투자 관리 산업에서 6 위, 전문 서비스에서 12 위를 기록했다.

금융 중심지	중화권내 순위	글로벌 순위	획득 지수
홍콩	1	4	725
상하이	2	6	723
베이징	3	8	721
선전	4	9	720
광저우	5	25	704
청두	6	34	695
칭다오	7	36	693
타이베이	8	80	607
다롄	9	93	553
난징	10	83	604

항저우	11	85	602
텐진	12	87	600

표 1) 출처: <제 32 회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 보고서(GFCI 32)>

중국의 총 14 개 금융중심도시가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홍콩, 상하이, 베이징, 선전은 글로벌 10 대 금융 중심지에 등극했다. 보고서의 '명성' 부분은 금융 중심지의 국제적 명성과 미래 발전 잠재력을 보여주는데 중국 금융 중심지의 발전 잠재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칭다오, 청두, 선전의 명성 부분 지수가 높아 글로벌 순위가 올라갔다.

위링치우〔余凌曲, 중국(선전)종합발전연구소 금융발전&국가자산국영기업연구소 집행소장〕는 이번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수 보고서(GFCI 32)에서 중화권 금융 중심지 경쟁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뉴욕과 같은 최상위 도시와 비교하여 선전이 금융 법률 제도, 세금 제도, 감독 측면에서 홍콩과 같은 국제 일류 수준에 부합해야 하고, 현지 금융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금융 기관과 금융 자본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 인재를 계속 유치하고, 금융혁신역량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여기에는 금융 시스템 혁신 외에도 제품과 서비스 혁신, 기술 혁신과 녹색 개발 지원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홍콩 매체 <밍바오재경(明报财经)>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대변인의 답변을 인용하여 홍콩이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로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며 금융 산업 발전 측면에서 4 단계 올랐다고 보도했다.

홍콩 씽다오왕(星岛网)은 홍콩이 줄곧 세계와 본토 시장, 투자자를 연결하면서 본토 금융 시장이 발전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보도했다. 재경사무국&선전시 치엔하이관리국은 치엔하이(前海) 선전-홍콩 벤처캐피탈의 공동 발전을 위한 18 가지 조치를 공동 발표했다.

9 월 15 일에는 <선전시 핀테크특별발전계획(2022-2025)(공개 의견 수집안)'이 발표되었고, 같은 날 싱가포르 매체 <리엔허자오바오(联合早报)>는 선전이 2025 년까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핀테크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선전의 핀테크 분야 유명 기업을 나열하고 선전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산업 핵심 우위와 경쟁력을 갖고 핀테크 발전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선전이 올해 4 월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금융 기관 유치 ○핀테크 선도 기업 배양 ○핵심 벤처 캐피탈 발전 지원이라는 3 대 금융 정책을 발표하며 일련의 조치를 내세운 점을 주목했다.

4. BCG, 2022 년 세계 50 대 혁신기업 발표 — 광밍왕(光明网)

최근 세계 최고 컨설팅기관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22 년 세계 50 대 혁신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1~10		11~20		21~30		31~40		41~50	
1	Apple	11	Meta	21	Toyota	31	Xiaomi	41	Tencent
2	Microsoft	12	Nike	22	Alibaba	32	eBay	42	General Motors●
3	Amazon	13	Walmart	23	HP	33	Hyundai	43	Ford●
4	Alphbet	14	Dell	24	Lenovo	34	Procter&Gamble	44	Intel●
5	Tesla	15	NVIDIA●	25	Zalando●	35	Adidas	45	ByteDance●
6	Samsung	16	LG	26	Bosch	36	Coca-Cola	46	Panasonic●
7	Moderna	17	Target	27	Johnson&Johnson	37	3M●	47	Philips
8	Huawei	18	Pfizer	28	Cisco	38	PepsiCo	48	Mitsubishi
9	Sony	19	Oracle	29	General Electric	39	Hitachi●	49	Nestle●
10	IBM	20	Siemens	30	Jingdong●	40	SAP	50	Unilever

표 1) 출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22 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50 강> 명단, ■중국 기업, ■한국 기업, ●신규 진입, ●재등극

이 명단은 최근 5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중화권이 떠오르는 혁신 중심지라는 추세와 일치한다.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작년보다 2 개 사 증가한 7 개 사로 화웨이(8 위), 알리바바(22 위), 레노버(24 위), 징동(30 위), 샤오미(31 위) 텐센트(41 위) 바이트댄스(45 위)다. 레노버그룹이 2 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순위가 상승한 유일한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올해 명단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4 개 사로 바이트댄스(45 위), 엔디비아(15 위), 파나소닉(46 위), 패션 전자상거래 플랫폼 Zalando(25 위)이다. 명단을 통해 자동차 산업이 다시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제너럴 모터스(42 위)와 포드(43 위)가 다시 상위 50 위 안에 진입했고, 테슬라(5 위)와 도요타(21 위)가 순위를 유지했으며, 현대자동차(33 위)도 여전히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BCG 2022 년 세계 50 대 혁신기업>에 속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북미에 위치하며 중국 7 개 사, 일본 5 개 사, 한국 3 개 사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올해 처음으로 기후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의 혁신을 조사했는데 비록 3 분의 2 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이 분야에서 혁신을 달성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혁신 능력을 갖추고 실천하는 회사는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판매 비율이 일반 회사의 비율보다 4 배나 높다. 혁신은 기업의 성장 엔진으로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투자분석】 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전환: 세계의 공장에서 연구개발 중심지로

1)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 변화 현황

퀄컴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R&D 센터를, 선전에는 세계 최초로 혁신 센터를 세웠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슈퍼팩토리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완성차 개발을 주로 하는 R&D 혁신 센터를 설립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시안 4 곳에 R&D 센터를 설립했으며, 지멘스는 쑤저우의 지멘스 전기제품 중국본부를 중국&동아시아 본부로 업그레이드하며 한국, 일본, 기타 국가 업무까지 포괄하기로 했다. Dassault 의 아시아 태평양 본사는 도쿄에서 상하이로 이전했다.

300 년이 넘은 독일의 의약•화학 전문 기업 머크그룹(Merck KGaA)은 글로벌 조기 임상 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중국 지역에서 R&D 진행한다고 발표하며 중국이 머크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첫 번째 단계의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머크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에 기대를 걸고 중국에 판매채널과 제약공장을 세웠으며 2017 년부터 장쑤 난통(南通)에 건설한 제약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이외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의 제약 산업단지다. 머크는 2022 년까지 2 억 1700 만 유로를 투자했다. 또한 2009 년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했고, 처음에는 본사의 R&D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이던 것이 2015 년 중국의 신약 심사 승인 정책이 새로 시행된 후 중국으로 연구 개발 단계를 이전하여 중국을 글로벌 초기 임상 개발 프로젝트에 완전히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머크 차이나 R&D 팀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에 약 200 명의 과학자를 두고 임상 개발과 운영, 등록, 데이터 과학, 생물 통계 등을 담당하며 항암약물, 면역과 신경계 혁신 약물, 보조 생식 기술 솔루션 등을 연구하고 있다.

머크처럼 중국을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이자 판매시장, R&D 중심지로 여기는 다국적 기업이 적지 않다. 외국 기업이 집결한 상하이를 예로 들면 2022 년 5 월 말까지 총 848 개의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와 512 개의 외자 R&D 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2020 년 7 월에는 프랑스의 다국적 식음료 업체 다논(DANONE) 그룹의 개방형 연구센터가 상하이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모유, 장 건강, 전문 특수 영양 제품, 식품 안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네슬레(Nestle)와 낙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다국적 기업 폰테라(Fonterra)는 중국에 R&D 센터 또는 제품 응용 센터를 설립해 중국의 중고가 분유와 유제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궈신증권(国信证券) 데이터에 따르면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 중국의 영유아 대상 분유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보통 분유 5%, 고가 분유 20.5%, 초고가 분유 39.5%(소매가치에 따른 통계)였고, 2023 년까지 초고가 분유 시장이 전체에서 26.4%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2) 외자 진입 단계

사업화•업그레이드•연구개발•과학기술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련의 프로젝트들이 중국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외자 진입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서 외자 진입 과정을 3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사진 1) 출처: ZAKER

1 단계는 테스트 단계다. 당시 중국은 외자 유치 방면에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도 없었다. 그저 외국 자본이고 외국에서 온 사업이라면 모두 최대 한도의 정책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했다. 외자를 유치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외국에서 재료가 오면 가공하고, 부품이 오면 조립하고, 샘플이 오면 가공하여 무역으로 이득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다. 자금이 극도로 부족하고 외환이 석유보다 귀했던 당시 중국에서는 외국 자본과 대외무역 사업만 있으면 모두 환영했다. 이 단계의 외자 활용 수준은 매우 낮으며 대다수 기업과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외국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던 단계다.

2 단계는 탐색 단계다. 이는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와 높은 효율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단계이며, ' Made in China'가 쾌속 발전하고 '세계의 공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 제품'이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는 단계다. 이 단계는 선진국이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시기였고, 중국은 이러한 기회를 잡아 글로벌 제조업의 전환 추세에 빠르게 올라타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중국 제조'는 내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고, '세계의 공장'도 우연이 아니라 중국의 공급과 세계의 수요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였다. 또한 이 단계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외자 유치의 길을 모색하여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종합적인 실력을 키우는 바탕이 되도록 했다.

세 번째 단계는 전환 단계다. 중국의 경제력이 계속 증대하고, 'Made in China'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특히 토지•환경•노동력 등 자원 요소의 공급과 수용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중국은 외자 도입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저가의 조잡한 제조 방식은 더 이상 중국 경제 발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며, 자원과 환경에 일어난 변화로 원래 외자 도입으로 진행했던 많은 프로젝트와 기업이 도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과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게 중국 외부로 이전했다. 이러한 이전이 일어나면서 중국에 진입한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어나고 '외자 철수론'을 제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외국 자본과 관련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외상 투자는 중국의 산업 구조와 경제 발전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고 중국의 경제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슬라, 슈나이더 일렉트릭, 지멘스, 퀄컴 등의 사례는 기존의 저가 제조, 단순 가공, 조악한 경영 관리와는 구별된다.

4 년 연속 개최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외자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5 회째인 올해에는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과 업계 선두 기업 270 여 개 사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며 재계약률은 90%에 가깝다.

3) 대중국 투자 전환의 또 다른 요인, 인재

자오천〔赵晨, Plug and Play China(璞跃中国) 중국관리 파트너〕는 투자자로서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아시아,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일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외국 기업 상당수가 중국에 자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Department)를 설립한다면서 '시장이 크고 인재 조달이 쉽다'는 2 가지 요인을 들었다.

해외에서 유학한 최고의 젊은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귀국하고 있다.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CCG, 全球化智库), 국제인재조직연합회(AGTO), 링크드인 차이나(LinkedIn China)가 공동 발표한<대학동기관찰: 2021 중국 이외 대학 졸업생의 직업 발전

연구와 전망 보고서>에서는 U10(세계 일류 과학 대학) 졸업생의 70%가 중국으로 돌아가 발전하는 것을 선택한다. 기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중국은 점차 인재 유실이 감소되고 '유학 후 중국으로 귀국하여 발전'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사진 2) 출처: ZAKER

중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2 년 1 월부터 8 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제 사용된 외자 금액은 8927 억 4000 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외자 증가폭과 규모 외에 외자 구조,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외자 도입을 보면 1 월부터 8 월까지 국가 하이테크 산업에서 외자 실제 사용액은 33.6% 증가했으며 그 중 하이테크 제조 산업은 43.1%,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은 31%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외자 활용 전환 효과가 매우 우수함을 증명한다. 기술, 품질, 품종 등에서 중국의 외자 도입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과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중국은 외국 자본을 사용하여 구조 조정과 전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삼성이 중국 공장 일부를 폐쇄한 것은 중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국 자체 브랜드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 때문이다. '외자철수론'의 진실은 외자를 활용한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것이며 외국 자본은 이미 가공 공장에서 연구소로 이동했다.

*출처:

1. ZAKER: 外资"撤离中国"？真相是，加工厂变实验室

2.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从工厂到实验室,感受外资企业在华十年之变

2. 【산업분석】 광저우 수소에너지 인프라 계획 발표

중국의 정책 지원으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저우는 광역만 지역 수소에너지 산업을 중시하면서 도입기간 동안 완전한 수소에너지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자 한다.

광저우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 월 21 일 <광저우 수소에너지 인프라 발전계획(2021-2030)>(이하 '계획'이라 함)을 공식 발표했으며, '제 14 차 5 개년 계획' 단계(2021~2025 년)에서의 목표를 수립했다. **바로 수소 생산 기지 1 개소, 수소 생산 지점 누적 3 개소 이상, 수소충전소 총 50 개소 이상을 건설하는 것으로 수소연료전지용 수소 생산 능력 35,000kg/일(13,000 톤/년)을 구축하고, 40,000kg/일(15,000 톤/년) 이상의 수소 충전 능력을 갖춰, 6,000 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 차량 운행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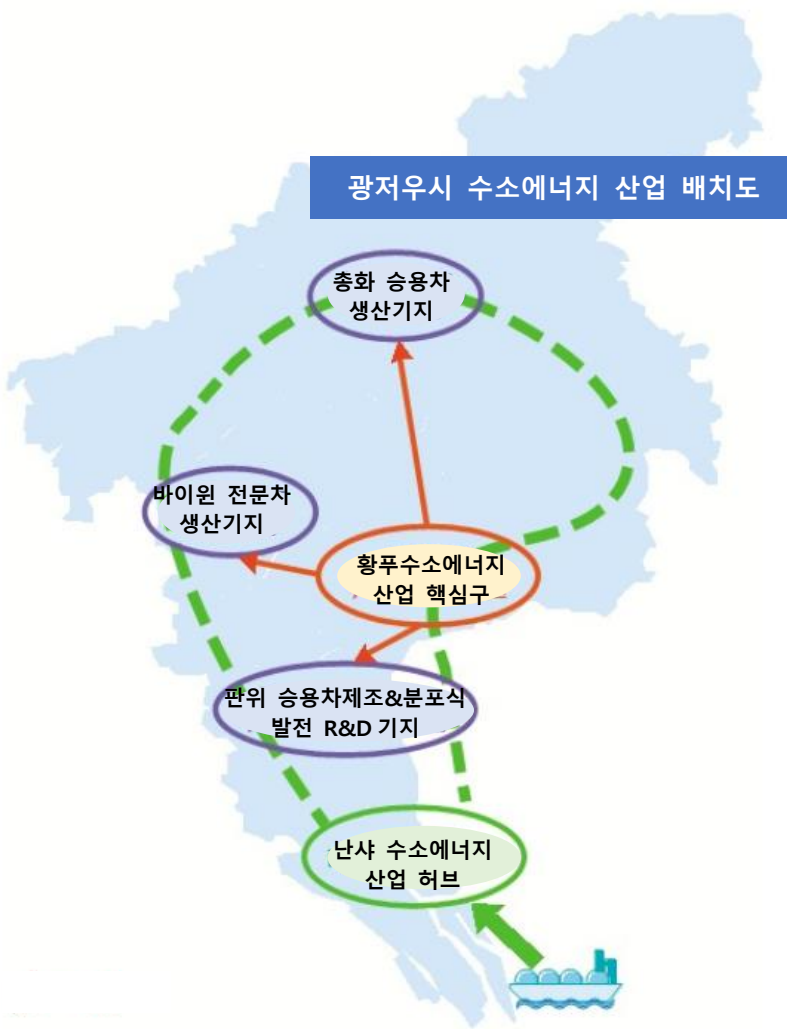
2026 년부터 2030 년까지 **수소충전소를 50 개 이상 신설하여 누적 수량 총 100 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수소 생산·수소 충전 종합스테이션을 5 곳 이상 배치하고, 수소연료전지용 수소 생산 능력이 100,000kg/일(36,000 톤/년)이상이 되도록 하여 수소연료전지차량의 상업화 요구에 맞춘다.**

장시위엔〔张仕元, 녹색지수과학기술(绿色指数科技) 창립자〕은 인터뷰에서 이 '계획'은 광저우시가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 시나리오에서 수소에너지 구현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계획'은 성•시급 수소에너지 산업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인프라'산업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현지 수소 제조•저장•운송 과정과 관련된 기업에 유리할 뿐 아니라, 업다운스트림 기업들까지 유입하여 광저우에 산업체인을 배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옌레이〔晏磊, 칭치그룹환경씽크탱크(清气团环境智库) 수석 애널리스트〕는 인터뷰에서 이 '계획'은 주로 수소 생산 공장과 수소충전소 설립을 목표로 한다면서 국내 수소에너지산업 체인의 전방과 중간 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한 계획을 내놓았다고 했다. '계획'에서 수소충전소의 입지 선정과 구현 추진 분업, 수소충전소 안전 사용법에 관해 대부분의 페이지를 할애하며 상세하고 정교한 계획과 설계를 하고 있다. '계획'의 목적은 수소에너지가 소비 단계로 가능한 빨리 보급되게 하는 것이다. '계획' 발표는 녹색 산업의 공공 및 사회적 자본 강화, 특히 수소에너지 제로 탄소 산업을 더 강화하여 광저우가 화남(华南) 수소에너지 중심 허브 도시가 되는 속도를 더 빨리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1 핵심, 1 허브, 3 기지'의 산업 배치

'계획'에서는 광저우에 수소에너지산업에서 '하나의 핵심, 하나의 허브, 3 개의 산업단지' 배치를 구현할 것을 명시했다.



즉 황푸(黄埔)에 수소에너지 산업 혁신 핵심 지역을, 난샤(南沙)에 수소에너지 산업 허브를, 판위에 승용차 제조&분포식 발전 R&D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나아가 바이윈(白云), 황푸(黄埔), 화두(花都), 판위(番禺), 난샤(南沙), 총화(从化), 정청(增城) 등지를 위주로 하되 다른 지역도 실제 상황에 맞춰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배치한다.

그림 1)출처: 광저우일보(广州日报)

바이윈구(白云区)는 수소에너지 기반시설 52 곳-충전소 51 곳, 수소제조 및 충전 복합소 1 곳을, 황푸구(黄埔区)에는 수소에너지 기반시설 47 곳-수소 생산소 3 곳(2 곳은 이미 완공), 수소 생산 및 충전 복합소 5 곳(1 곳은 이미 완공), 충전소 39 곳(4 곳 완공)을 계획했다.

계획 실시 후 광저우시는 북부, 중부, 남부 3 대 수소 공급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수소를 공급하는 최적 거리가 60km 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광저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 수소 운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광저우시는 기본적으로 광저우시 내부 주요 간선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또한 광저우-둥관(东莞)-선전, 광저우-포산(佛山)-양장(阳江), 광저우-중산(中山)-주하이(珠海) 고속도로 상

에 수소 충전소를, 광저우시 내 주요 간선에 수소 충전소를 두어 수소에너지 통로를 형성한다.

옌레이(晏磊)는 광저우시가 수소에너지 응용에 있어 비교적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중화학 산업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난샤(南沙)의 중화학공업체인을 포함하여 광저우석유화학(广石化), 광저우철강가스(广钢气体), Linde(林德) 기업이 있고, 수소에너지 부산물이 풍부해 사용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다.

선정한 입지는 대부분 광저우시의 대형 버스정류장에 있다. 이는 광저우의 독특한 장점이기도 한데 광저우의 버스 시스템은 정류장 면적이 넓고 공터가 많아 교통 분야, 특히 버스에서 수소에너지 구현을 촉진하기에 매우 좋다.

2) 상업화 전야(前夜)

'계획'에서는 수소 생산공장, 수소 충전소, 수소 저장소 수량을 늘리는 목표 외에도 2022 년까지 증설 및 교체되는 청소 차량 중 수소 연료전지차량 비중이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버스, 물류, 엔지니어링 서비스, 창고, 항만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시범 운행을 3000 대 이상 두며, 공무 차량, 택시, 공유 자동차에서도 100 대 이상 시범 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1) 출처: 칭윈리엔(氢云链)

2025 년까지 버스, 청소 차량 중 수소 연료전지 차량 비중이 30% 이상 되도록 하며, 수소 연료전지 승용차가 천 대 규모로 상용화 응용을 이룬다고 했다. 물류, 창고, 항만은 물론이며 수소에너지 연료 전지는 전력과 열 에너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사용을 실현한다. 철도 교통, 선박, 항공에서도 시범 응용을 하여 2020 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 동력 시스템을 자동차, 철도 교통, 선박, 항공 분야에서 누적 10 만 대 이상 설치한다.

현재 수소자동차 가격이 연료자동차보다 비싸고, 수소에너지 인프라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수소연료전지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시장에 투입된 수소 연료 자동차 수량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1 년까지 중국의 수소자동차는 8,922 대로 만 대에 채 미치지 못한다.

리인린〔李音临, Rock Capital(洛克资本)〕는 현재 수소연료전지 차량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수소에너지 저장과 운송에 따른 기술 혁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일반적인 민간 상업화 시나리오에서는 고압으로 가스화하여 저장•운송해야 하고 저장 용기의 내압성도 높아야 한다. 기존의 저장 및 운송 기술 하에서는 운송 거리가 50km 이내이면 수소의 운송 비용이 kg 당 약 5 위안이지만 거리가 200Km 를 초과하면 운송 비용이 kg 당 10 위안을 초과하며 경제적 이익이 빠르게 감소한다. 그는 "수소 운송 비용을 크게 줄이려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유사한 운송 채널을 구축해야 하기에 막대한 기초 투자가 들어간다. 현재는 수소에너지 시장이 작아 투자 수익이 매우 낮다. 현재 중국내 수소에너지 저장 및 운송 장비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고압 수소 저장 용기 구조와 재료 강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를 하려면 대규모로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수소 산업체인에서 보이는 딜레마다.

동씬루이〔董新蕊, 까오량캐피탈(高粱资本) 창립 파트너〕는 수소에너지가 규모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수소에너지 사용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수소연료전지의 걸림돌은 수소저장과 운송에서의 안전성, 전기 추진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정도와 원가 통제에 있다. 특히 멤브레인 전극 촉매제 관련 기술이 핵심 기술이다.

장시위엔(张仕元)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이 상용화 전야에 처해 있다면서 그 이유로 현재 수소를 원료로 하는 운송 솔루션이 수소 생산•저장•연료 보급하는 전체 과정에서 모두 연료 차량보다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중국 내 연료전지 기술은 개발 중이라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응용 시나리오에서 테스트하여 빠른 시일에 양산에 필요한 사례와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저우시가 강력하게 수소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중국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수소 생산•저장 및 운송•연료 보급과 같은 기술 과정을 수소에너지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적용해야만 규모를 통한 비용 최적화와 경제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ChinaTimes(华夏时报)"十四五"超 50 座加氢站将落成，广州市氢能基础设施规划出炉！

3. 【기업분석】UBTECH, 글로벌 최초 수소에너지 구동 로봇 개발

UBTECH(优必选)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콘텐츠로 AI 로봇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회사 프로필

시기	내용
2008 년	• AI 휴머노이드 연구 개발
2012 년	• UBTECH Robotics 정식 설립
2016 년	• CCTV 춘절쇼에서 540 대 Alpha 로봇이 댄스 공연
2017 년	• 지능형 서비스 로봇인 Cruzr 상용화, 대량 생산
2018 년	• Jimu 로봇 CCTV 춘절 쇼에 등장 • 텐센트 파트너사를 위한 Alpha Ebot 과 Wukong 로봇 출시
2019 년	• CCTV 춘절쇼에서 Walker 공연 • 디즈니 파트너사를 위한 MARK50 로봇 출시
2020 년	• 지능형 전염병 예방 로봇이 고위험 발생 15 개 국에 투입됨 • AI&로봇 교육 솔루션 3 천 곳 이상 학교에 보급 • 2020 두바이 엑스포 차이나관에 판다 로봇 전시
2021 년	• CCTV 춘절쇼에 사지가 달린 황소형 로봇 등장 • WAIC(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업데이트된 휴머노이드 로봇 Walker X 글로벌 데뷔

▶인기 로봇 소개

상호작용 가능한 지능형 로봇	순찰 검사 로봇	대형 휴머노이드 로봇	자외선 소독 로봇

사진 1) 출처: UBTECH(优必选) 공식사이트 www.ubtrobot.com

▶수상 연혁

• 2017, 2018, 2020 CB Insights 선정 AI 100 강 그룹 • 2019, 2020 Top 100 가장 가치 있는 중국 브랜드 • 2020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기업	• 2017, 2018 CES 혁신상 • 2018 세계로봇대회에서 가장 혁신적 상품상 • 2021 포춘 선정 Top 20 스타트업

1) 허난성 푸양(濮阳)시와 UBTECH(优必选) 전략적 협력 체결

사진 2) 출처: 신랑재경(新浪财经头条)

뉴스에 따르면 UBTECH(优必选)는 2022 년 9 월 28 일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씽(一行)'을 출시하고, 푸양시(濮阳市)와 인공지능&수소에너지 융합에 관한 전략적 합작을 체결했다. UBTECH(优必选)는 인공지능 기반의 신에너지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탄소 피크,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녹색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숑요우쥔〔熊友军, UBTECH(优必选) 최고기술경영자〕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씽(一行)'은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수소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전력을 출력한다. 에너지 보충 효율이 더 높고 배터리 수명이 더 길고, 수소에너지 소모 과정 중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데다가, 북방의 저온 환경

에서도 여전히 동력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어 수소에너지와 인공지능이 상호 보완하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3) 출처: 신랑재경(新浪财经头条)

2022 년 4 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021-2035>을 공동 발표하며 수소에너지가 미래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이며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주요 신흥 산업 방향으로서 수소에너지 산업은 녹색 저탄소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임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인공지능은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칭지우〔杨青玖, 푸양시(濮阳市) 당위원회 서기〕는 '인공지능과 수소에너지' 융합 발전 시기가 이미 도래하여 그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1+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푸양시와 UBTECH 와의 발전 전략이 통하고 방향이 일치하여 합작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며 산업 발전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기대하며 이번 전략적 협력 체결로 상호 보완하며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고 했다.

푸양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소에너지,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했으며 그 중 수소에너지 산업은 자원이 고갈된 도시 푸양의 변화를 주도하고 수준 높은 발전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올해 2 월 푸양시는 <푸양시 수소에너지산업 발전 3 개년 실행계획(2022-2024)'>을 발표하며 수소에너지 산업체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푸양의 수소에너지 산업도 단기간에 큰 진전을 이뤘다. Sinopec(中石化)의 메가와트급 양성자막 전기 물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PEM) 시범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녹색 수소'

생산 능력이 연간 360 톤에 달하게 되었다. 올해 6 월 30 일에는 첫번째 푸양 제조 18 톤 수소연료전지 청소차량 25 대와 10.5 미터 수소연료전지 버스가 5 대 제작되어 교부되었다. 산야오동방(陕耀东方)수소에너지산업보육단지 프로젝트&PGO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산업연구원 허난분원(河南分院)이 푸양에 건립되어 수소 생산 장비 제조, 연료 전지 재료 생산 등 업•다운스트림 관련 산업도 육성하게 된다.

사진 4) 출처: 신랑재경(新浪财经头条), 양칭지우〔杨青玖, 푸양시(濮阳市) 당위원회 서기〕, 조우지엔〔周剑, UBTECH 의 창립자•회장 겸 CEO〕

현재 중국의 수소에너지산업은 연구 개발에서 산업화 시범 응용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으며 주로 교통 운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응용 분야는 발전 여지를 많이 갖고 있다. 장위〔张宇, 중국산업발전진흥회 수소에너지 분과 부회장 겸 비서장〕는 "수소에너지와 인공지능의 융합은 수소에너지 응용 시장을 넓혔고 수소에너지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며, 중국의 2035 년 다원화된 수소에너지 응용 생태 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UBTECH 는 '인공지능과 수소에너지' 융합 발전에 기반하여 푸양시, 도농(都農) 통합 시범구와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과 로봇 시범구를 공동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테크놀로지 타운을 건설하며, 로봇 테마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관과 교육 단지를 설립하고, 양방이 함께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발전을 배치해 푸양에 화북 지역 최초의 인공지능&로봇 응용 전형을 만들기로 했다.

조우지엔〔周剑, UBTECH 의 창립자•회장 겸 CEO〕은 "하드코어 기술의 장기적인 가치는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큰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큰 추세와 기회를 잡아 UBTECH 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역량 발전에 공헌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수준 높은 발전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녹색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했다.

*출처: 1. 신랑재경(新浪财经头条): 优必选发布全球首款氢动力人形机器人「一行」, 推动人工智能产业绿色发展

2. ZAKER: 全球首款氢动力人形机器人！濮阳"氢"力引领新发展

KIC 중국 뉴스

1. 2022 년 4 분기 혁신기업 K-Demo Day 연기 공고

지난 한 주 동안의 심사를 거쳐 2022 년 4 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로드쇼 참가기업 선정을 마치고 총 10 개사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으나, 중국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행사일이 부득이하게 연기되었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연기된 날짜는 12 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재조정 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에 보답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방역 조치가 완화된 후 빠른 시일 내에 행사를 재개할 예정이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기술거래사회-글로벌혁신센터, 中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

사진 1 한국기술거래사회(회장 남인석)와 글로벌혁신센터(센터장 김종문) MOU 체결

지난 10 월 21 일 글로벌혁신센터(센터장 김종문)는 한국기술거래사회(회장 남인석)와 국내 민간기업·기술의 해외(중국) 기술이전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 기술이전 지원·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기술 사업화 관련 △기술 이전 및 거래 분야 전문가 활용, 기업·기술 발굴, 수요 연계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기업 정보 최대한 공유 △양 기관이 발굴한 기업에 수요기술 공급, 전문정보 및 컨설팅 지원 실시 △기타 경진대회와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 관련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김종문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의 자원과 기업 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한중 기술이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거래사회 소개:

(사)한국기술거래사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14 조)에 의거하여 기술거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기술 발굴 거래 이전 및 평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정책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술거래 중개, 기술경영 컨설팅, 기술가치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회 망을 바탕으로 협업과 융합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거래사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간 중국 창업

KIC CHINA
Korea Innovation Center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메일: info@kicchina.org
홈페이지: www.kicchina.org
전화:+86-10-6780-8840